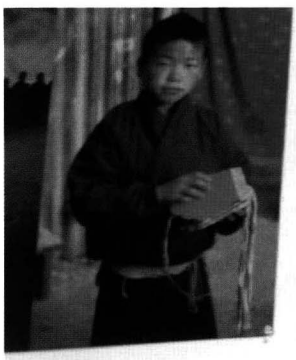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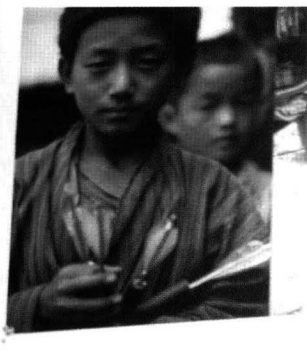



고서수집 23년, 더한 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화봉책박물관' 개관한 화봉문고 대표 여승구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인연이 있다. 떨치려 하나 떨칠 수 없는, 지난한 몸살 뒤에 결국 내 것으로 끌어안고 마는 인연 말이다. 화봉문고 여승구(68) 대표에게는 그 인연이 고서古書였다. 고서수집을 위해 발품을 판 세월만 스물세 해. 여 대표가 고서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고서가 여 대표를 끌어당긴 것인지도 모른다. "마치 블랙홀과도 같았다. 여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연"이라고 여 대표는 말한다. 그 인연에 답하듯, 여 대표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신문로에 '화봉책박물관'을 설립, 개관식을 가졌다.

"화봉문고를 운영하던 1982년에 '서울 북페어'를 기획했습니다. 주제별 책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작은 행사였지요. 서울 북페어가 소개된 신문을 보고 국문학자 윤석창 씨가 한국문학 초판본 200여 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북페어에 전시해 팔아달라고 했지요. 기획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 내가 사겠소, 하고 윤 씨의 컬렉션을 그 자리에서 모두 샀습니다. 고서와의 첫 인연이었지요."

한국문학 초판본은 여 대표의 고서 컬렉션 1호가 될 인연까지는 아니었다. 한국문학 초판본으로 북페어 기획전을 마친 여 대표는 경매를 통해 그것을 팔고자 했다. 경매 마감 전날 언론인들과 저녁식사를 가졌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대뜸 "그것을 왜 파느냐. 고서수집을 시작해 문학박물관이나 설립해 보라"는 말을 던졌다. 지나쳐도 좋을 농반진반의 말이었지만, 여 대표는 '이거다' 싶었다. 다음날 경매를 유찰시킨 여 대표는 그날부터 부지런히 고서를 찾아다녔다. 좋은 고서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면 해외도 마다않고 달려 나가기 여러 번이었다. 여 대표는 "고서란 신령한 것이어서 언제 어디서 저를 부를지 모르는 물건"이라고 말한다.

"일본 오사카 역 앞에 있는 고서아케이드에서 한글 초판본《천로역정》을 찾았지요.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소설로 꼽히는 고서였으니 그때의 흥분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120만 엔에 매매계약을 합의하고는 한국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통관과정에 그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문화재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외국서 들여오겠다는데 잘못된 것 있느냐고 당당하게 따졌죠. 밀수 조사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까지 당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서美書로 꼽히는《그레고리안 성가》를 사러 갔던 스페인에선 지갑을 잃어버려 국제 미아가 될 뻔했지요."

여 대표가 수집한 고서는 무려 10만 점이 넘는다. 자료화하지 않아 여 대표 자신도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한단다. 10만 점이 넘는 고서 속에는 1568년 발간된 한국최초의 백과사전《고사촬요》, 1797년에 발간된 오륜에 출중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오륜행실도》등의 희귀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고서 외에 '좁쌀책'으로 불리는 미니북도 천여 점, 세계의 유명 누드집도 상당수 수집했다. 여 대표의 고서수집 인생을 따라가자면 희로애락의 사연이 한 보따리다. 진귀한 고서는 물론이요, 수집인생의 요철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여 대표가 개관한 화봉책박물관이다.

"감개무량합니다. 박물관을 만들어 우리 문화재를 사람들 가까이 두어야겠다고 늘 생각했지요. 이십 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전시를 관람한 사람들이 책과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서는 읽기 어려운 책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고서 가운데 시각적인 자료들을 전시해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게 할 것입니다. 책을 사랑하는 마음도 흥미가 먼저 있고서 생기는 법이지요."

화봉책박물관 개관 전시를 '세상에서 가장 큰 책,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으로 기획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박물관 개관전시인 만큼 여 대표의 관심은 각별하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책인《*Old King Cole*》을 이미 수집한 여 대표는 개관전시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책인《부탄*BHUTAN*》을 1만 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구입했다. 워낙 큰 책이라 특수전시대를 설치하는 데도 그만한 돈이 들었다. 예상치 못한 비싼 가격이었지만, 오염되지 않은 지상의 마지막 나라 '부탄'을 위해 쓰인다는 출판사의 말에 여 대표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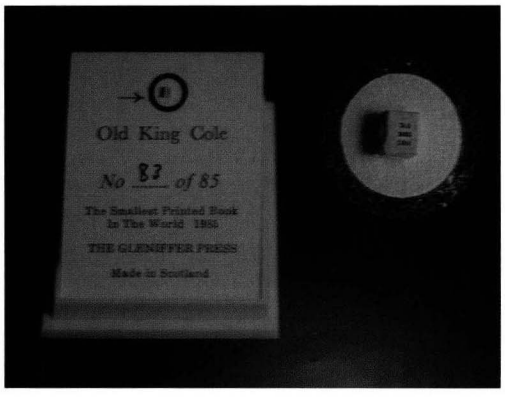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큰 책《부탄》은 펼친 크기가 2미터, 무게가 50킬로그램을 넘으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책《*Old King Cole*》은 가로세로 1밀리미터의 크기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간신히 활자를 읽을 수 있다. 이번 개관전시에는 두 책과 함께 세계의 희귀 고서와 유명 누드집을 상당수 전시했다. 개관전시가 끝나면 고구려사를 주제로 전시를 가질 계획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자행되는 이때, 많은 고지도와 고서를 통해 고구려사가 엄연한 한국사임을 밝혀 보일 생각이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보다 100여 년 뒤에 만들어진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세계최초의 것이라 공인받는 것이 억울할 뿐이지요. 책박물관을 개관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 활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브랜드, 한국의 이미지를 '금속활자를 최초로 발명해 사용한 민족'으로 알려야 합니다. 국제교류까지 담당할 국립 책박물관이 하루 빨리 설립되기만을 또 바라고 있지요."

고서수집 23년, 여 대표가 더한 것은 고서만이 아니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까지 더하고 있었다. 여 대표는 인터뷰 가운데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것 맞습니까?"라고 물어왔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잘한 것인가, 종종 되묻게 되는 날이 많단다. 물음이 왜 생기질 않겠는가. 돌아보면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과 단체, 심지어 우리 모두가 뒷짐진 채 모르쇠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그러나 여 대표는 한가한 감상에 젖을 사람이 아니다. 좋은 고서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다시 홍겹게 걸음을 옮길 것이다. 인연이란 것은 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세계에서 가장 큰 책(왼쪽)__《부탄》은 펼친 크기가 2미터, 무게가 50킬로그램을 넘으며,
세계에서 가장 작은 책(가운데)__《Old King Cole》은 가로세로 1밀리미터의 크기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간신히 활자를 읽을 수 있다.



화봉책박물관 개관 전시

전시주제_ 세상에서 제일 큰 책,
세상에서 제일 작은 책
전시기간_ 2005년 2월 28일까지
문의_ 735-5401~4